



현대 역본들의 성경공격

J.T.C.

이 책에 나오는 정보를 제공한 리베라 박사에게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1985 by Jack T. Chick LLC. Printed in U.S.A.



또 다른 번역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가족도 뒤따라 사고사나 흉기 피격이나 독살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범한 백성의 언어로 옮기는 일에 가담했던 청교도 학자들 중 여럿이 이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초의 공격은 에덴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2:17

사탄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심어놓고는 이브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더냐.”*

창3:1-3



하나님을 의심한 결과 그들은 반역하였고
그 결과 지금은 죄와 사망이 곳곳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심을 퍼뜨리기 위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거나 변개시켜 왔습니다.

사탄의 주된 공격 수단 중 하나는 ‘외경’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경은 대언자 말라기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출생 이전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역사와 윤리 등을 담은 책들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연옥,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의
변개 등이 다 외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외경의 이야기 중 얼마나
마카비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카비들은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는 영웅들로 숭배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역사를 담은 기록은 트렌트
공회에서 정경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외경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외경이
예수회에 의해 영향을 받은 카톨릭 신도들이
제작하는 현대 성경 역본들에 들어 있습니다.

*See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2005). Available from Chick Publications.

사탄은 구약 성경에 외경을 넣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 랍비들은 외경을
위조문서로 여기고 배척하였습니다.



주의: 주 예수님이나 그분의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외경에서 인용하거나 그것을
성경기록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출산할
마리아를 감쌌듯이* 신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을 감싸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출산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봉괴시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 농 1:33-35; 베후 1:21; 요 1:1

사탄은 무서운 팝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 사본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것들을 필사하여 숨겼습니다.

사탄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지식인들을 고용하여 신구약 사본들을 번개시켰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이 변개된 사본들에 권위를 부여하는 번역자들을 사용하여 죽자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나온 성경들은 예수님이의 신성과 처녀 탄생,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 등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조 사본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의 작품으로 여겨 거부하였습니다.



또 다른 공격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초대 교황)이 사탄의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서 50권의 성경을 만들라고 명령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천주교회의 교부(教父) 중 하나인 제롬은 이집트에서 나온 사탄의 사본들에서 천주교회의 공식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라틴 벌게이트(불가타)'라 불렸습니다.



이로써 마귀는 자신의 부패한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서 자신의 성경을 만들었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모조품 교회 - 천주교회- 를 만들었습니다.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pp. 44-46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pp. 52-57

1229년에 둘루즈 공회의 결정에 따라 성경은 천주교회의 금서 목록에 올랐습니다.



사탄의 다음 공격은 1546년에 있었던 트렌트 공회에서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그 공회에서 외경은 성경기록이며 구약성경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주의: 이 위험한 법은 아직도 유효하며 추후에 있을 종교 재판에서 이용될 것입니다.

교황은 자신이 땅에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살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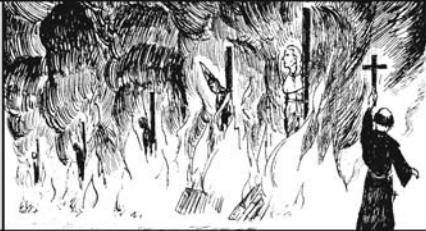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채 발견된 성경 신자들은 학살당하였고 성경 기록들은 불살라졌습니다.

그때까지 보존되어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라 불렸습니다.

사탄은 무서운 종교 재판을 통해 성경 전쟁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차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공인 본문 사본을 찾아 없애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벽돌 한 장 안 남기고 부수었습니다.

바티칸은 천주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인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암흑시대는 바티칸이
'수색하여 진멸하는 시기'였습니다.



바티칸은 천주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인
본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이 온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아버지' 즉 '성부'라고 부르는 자를 우두머리로 둔 이 사탄 체제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땅에 있는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체제라고 부르십니다(계17:5).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러한 악의
체제를 대적하여 일어나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흉악한 바티칸 체제에
항거할 때에 루터는 종교 개혁의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반항자) 혹은 이단이라
불렸습니다.

루터는 공인 본문 사본을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조국 독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겨 주었습니다.



1525-35년에 틴데일은 영국을 위해
같은 일을 하였으나 천주교회는 그를
불잡아 화형시켰습니다.

이로써 천주교회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교황은 곳곳에서
'적그리스도'라 불렸습니다.



1540년에 사탄은 교황
바오로 3세를 이용하여,
로욜라와 그가 세운 예수회
(Jesuits)를 천주교회 안으로
공식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동시에
자신들의 신학과 철학을 성경 기록
위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국 황실은 교황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합법적 치리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였습니다.



이런 죄로 인해 교황은 예수회
사람들을 영국에 급파하였고 이들은
안에서부터 영국을 봉괴시키기 위해
요직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의 연대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기 위해 바티칸이 프로테스탄트 영국과 치른 전쟁을 보여 줍니다.

1534년 영국에 영국 국교회가 세워짐	1558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를 물려받아 천주교회를 정죄하고 다시 국교회로 돌아옴
1540년 천주교의 예수회가 교황의 인정을 받음	1560년 종교개혁이 스코틀랜드를 훔쓸고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영국에 영향을 미침
1545년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정죄하고 천주교회의 교리 법을 세우기 위해 트렌트 공회가 형성됨	1588년 천주교도인 스페인의 필립 2세가 프로테스탄트 국가인 영국을 멸하려고 무적함대를 보냄
1553년 영국에서 천주교도인 메리 여왕이 왕위에 올라 국교회 지도자들을 죽이고 천주교로 다시 돌아감	1604년 제임스 왕이 영국을 위해 성경을 번역할 것을 지시함
	1605년 영국 국회를 날려버리려는 천주교의 음모가 발각됨

영국 내각에 잠복해 있던 카톨릭 첩자들은 제임스 왕이 영감 받은 공인 본문을 기초로 영어 성경 번역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떠뜨렸습니다.



이 소식은 바티칸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언어에 능통한 예수회 사람들은 곧바로 영국 국교회에 연합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왕이 신뢰하던 조언자들 중 일부는 골수 천주교도인 첩자였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자신들의 진짜 교회를 섬길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셈입니다.



체교도들은 자기들을 돋도록 선정된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왕에게 항의하였으나 왕은 이들의 말을 묵살하였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본문을 로마 카톨릭 알렉산드리아 본문인 바티칸 사본으로 몰래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업실의 모든 테이블 곁에 병사를 뒤에서 작업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하셨고, 이로써 위장한 예수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지막 목표라 할 수 있는 절충안이 잠정적으로 달성되며 외경이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그들의 마지막 사명이 완수되었는데 그것은 곧 외경을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에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신성모독 책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성경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역사적인 책으로 외경을 집어넣었으므로 예수회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외경을 성경 기록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천주교회를 최종권위로 따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예수회 사람들은 자기들을 반대한 프로테스탄트 반역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일가친척들도 조직적으로 제거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알아야 할 것이오.

후에 두 명의 예수회 사람들은 회심하여 청교도들에게 프로테스탄트 운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 꾸며진 음모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청교도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회 사람들은, 외경이 제외되고 인쇄된 영어 성경이 퍼져나갈 경우 천주교회의 세력이 끝나고 미래의 종교 일치 운동에도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제가 듣건대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 합니다.

이단들이 외경을 제거하려 한다고?

네, 그러면 우리는 수세기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침내 1655년에 청교도들은 외경이 제거된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영어로 된 자신의 거룩한 말씀에 복을 주셨습니다. 설교자들은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으며 말씀을 기감할 엄두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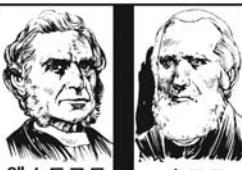
선교사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천주교회는 바티칸에서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마지막 반격을 가할 때다!

예수회 사람들의 지시 하에 드디어 영국에서는 "성경을 갱신합시다! 너무 낡았잖아요!"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고 더 좋은 번역'을 위한 위원회가 꾸며졌습니다.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 위원회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다른 위원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해 사탄의 알렉산드리아 본문(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수용하게 하였고 그 결과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이 싸움에서 이기고 말았습니다.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pp. 118-121, 149-151.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를 몰래 '영국 개역 성경'이라는 천주교 성경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그 이단 성경의 신뢰도를 없애야 합니다.

바티칸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기 위해 공세를 취했고... 예수회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 신학교와 성경 공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자 예수회 사람들은 신학교로 들어가 미래에 목사가 될 예민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과 비교하여 얼마나 정확하지 살펴봅시다.

그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 본문*은 사탄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에서 나왔으므로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기들이 기만 당하고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 네슬레의 그리스어 본문(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날마다 교실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신학교에 왔던 학생들은 이제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바티칸이 이 일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나머지, 이제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신학교는 자신들의 최종 권위로 사탄의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들의 등불은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목사들과 라디오 설교자들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교정하고 다른 역본들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원문'의 그리스어대로라면 이런 뜻이 되어야 합니다...

바티칸은 새 역본들을 만드는 데 수십 억의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 부패한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본문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우리 손에 그것이 있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내역을 봅시다.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사용하는
현대 역본들은
수많은 곳에서
단어와 문장과 절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벗지 말지니라.”(신12:32)
(신4:2, 잠30:5-6, 계22:18-19 참조)

* 칙 출판사에 있습니다.

당신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으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행8:37)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마18:11)

다음 구절은 사53:12가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막15:28)

NIV, 메시지, 개역
(개정),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외 29
개 성경에 없음

NIV, 개역
(개정),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외 22
개 성경에 없음

NIV, 개역
(개정),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외 21
개 성경에 없음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의 “박사성경”은 카톨릭 교회의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나온 개역(개정)성경에서 번개된 모든 부분을 날날이 보여 줍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멸망하려니와...”(잠13:13)

현대 역본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다면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성경이 단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십시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막13:31; 뉷21:33

당신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www.KeepBible.com과 www.chick.com/information/bibleversion/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성경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100년 동안 개역성경은 권위체 문장의 응장함과 간결함, 뛰어난 읽힘성 등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영혼을 살리며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 한국 전쟁 등의 어두운 시대를 거치던 성도들에게 믿음과 안위와 소망을 준 등불이 바로 개역성경입니다. 이런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개역성경은 번역의 근간이 되는 본문과 그 본문을 번역한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벗어난 점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크리스천 믿음의 근간이므로 이 팸플릿에서는 개역성경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하고 올바른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개역성경(혹은 개역개정판) 전체를 편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는 것이므로 마음을 열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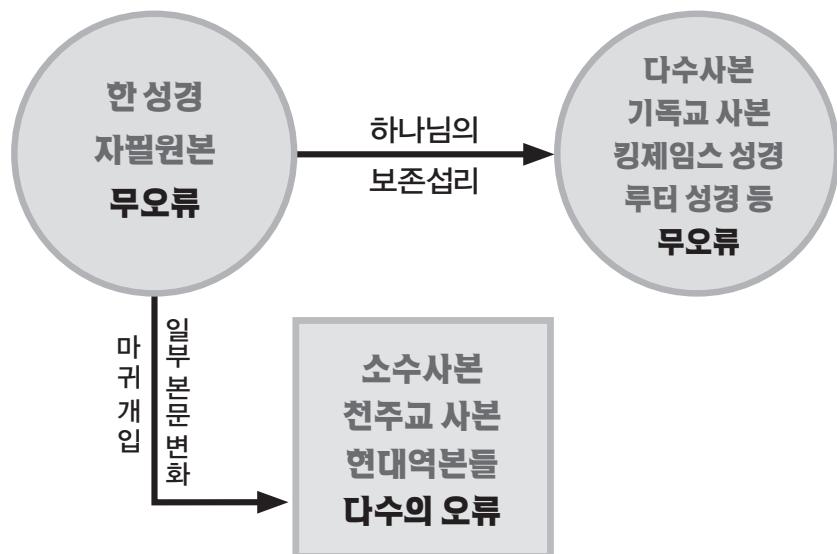


왜 성경이 이처럼 다를까요?

출처	개역성경·NIV 등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
창2:7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너라.
시10:4~5	그(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잠26:22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 식과 같아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전1:14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사9:3	주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호10:1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암4:4	삼 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골2:18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은 처음에 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개입으로 성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약성경 본문에는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과 루터 성경 등 종교개혁 성경의 본문인 공인본문(Textus Receptus, TR)과 한글개역성경(개역개정판)·표준 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의 본문인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의 비평본문(Critical Text, CT)이 있습니다. 성경 번개의 챔피언인 이 두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9,970개 단어를 바꾸었고 이로 인해 각종 이단 사상이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어 공인본문과 비평본문 비교

	공인본문	비평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 군데 수정 ▶ 1,952 군데 삭제 ▶ 467 군데 추가 ▶ 3,185 군데 번개
총 페이지 수	647	9,970 단어 번개
페이지 당 단어 수	217	페이지 당 15.4 단어 번개
변개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번개
번개 분량	없음	총 46 페이지에 해당함



왜 이 말씀들이 빠졌을까 궁금해한 적은 없습니까?

기준의 성경에 절 번호만 있고 (없음)으로 표시된 구절들		
1	마17: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겉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거기서는 그들의 별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거기서는 그들의 별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7	막15:28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11	행15: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12	행28:29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 절 번호가 있는데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 의아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원래 이런 구절이 없었으면 절 번호가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24:35).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어 갑니다. 그는 성경을 변개시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구원 교리의 변화

1. 구원받기가 어려운가?

만일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친다(롬3:23). 그런데 개역성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 근거하였기에 자꾸 행위로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 ▶ 개역(개정) :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막10:24)

그러나 바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 흠정역 :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2. 구원은 평생 과정인가?

믿는 이들의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가? 평생의 과정인가?

- ▶ 개역(개정) :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2:2)

- 흠정역 :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수한 젖이 무엇인가? 흠정역 성경은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구원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함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평생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교 체제 하에서는 사람이 평생토록 죄의 종이 되어 사제의 말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 빌립보서 2장 12절도 이와 비슷한 것을 가르친다.

- ▶ 개역(개정) :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 흠정역 :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여기의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 구원은 평생의 과정이 되고 말지 않겠는가? 이 구절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미 받은 구원을 행위로 드러내어(work out) 실행할 것을 가르친다.

3. 구원은 행위로 되는가?

개역성경의 행위 신학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이 말씀에서도 잘 드러난다.

- ▶ 개역(개정) :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요3:36)

- 흠정역 :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4.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인가,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인가?

- ▶ 개역(개정) : 그러나 이 은사(the gift)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 흠정역 :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the free gift)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롬5:15)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다고 기록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들에 근거한 개역성경은 NIV 등과 마찬가지로 ‘거저’(free)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다(롬5:16; 5:18에서도 마찬가지임). 이 단어가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닌가?

킹제임스 흠정역

King James Bible 1611

한영대역 큰글자성경
스터디바이블 작은성경

2011
400주년
기념판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족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출간 이래 전 세계의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원어(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공인본문)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웨슬리·스펄전·무디·로이드존스 등 권능의 사역자들이 사용한, 유일한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히 번역하여 '(없음)'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 루시퍼·갈보리 등의 단어들이 살아 있으며 천국·지옥·삼위일체 등의 교리가 명확합니다.
- 우리말 어법에 충실히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 정확한 용어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시켰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어 원어와 영어의 감동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이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